

# 사건으로 보는 옛이야기

**9주. 여성, 문학으로 삶을 가꾸다**

**3차시. '호연지기'를 시로...**

## 학습목표

1. 김호연재의 삶을 살피고 조선시대 여성 삶을 이해한다.
2. 김호연재의 시세계 특성을 이해한다.

# 🔍 김호연재는 누구인가?

호연재 김씨(1681-1722).

김상용의 후손. 9남매 중 8째.

- 9세까지 서울 북촌에서 생활.
- 1689년 홍성 갈매 오두리로 낙향.
- 문학 창작 활성적 환경에서 성장.
- 1700년 19세 송요화와 결혼
- 결혼 후 거의 혼자 생활.
- 시, 술, 담배 등을 즐거움으로 삼음.
- 호연재집, 자경편



<http://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iha2006&logNo=221230383290>

## 🔍 호연재 시

시냇물소리 푸른 숲에서 울려나니  
산 그림자도 물을 따라 흐르는구나.  
날이 다하도록 찾아오는 이 없고  
꾀꼬리 소리만 작은 동산에 그윽하네



<http://cafe.daum.net/hongjuliterature/AttF/7>

## 꿈에 돌아가다 (夢歸行)

꿈속에 혼이 돌아 고향에 돌아가니  
놀 안개 강에 가득하고 물은 부질없이 물결치도다.  
어촌은 쓸쓸히 봄빛 저물었는데  
아득히 높은 집이 우리 집이로구나.  
방초 돌아 난 못 뚝에서는 푸른 이끼 끼었고  
이리저리 떨어진 꽃 땅에 가득히 붉었어라.  
주렴 반만 걷고 서로 나와 웃으며 맞으니  
형제들 옛 집 가운데 완연하였도다.  
은근히 묻고 대답함은 평상시와 같은데



서로 그리웠었다는 말에 눈물이 절로 흐름이여.  
그리움에 몇 번이나 애가 끊어지려 했던가?  
아우의 얼굴 이미 쇠하고 형의 머리 희었구나.  
홀연히 물 위의 새벽 조수 움직임을 듣나니  
꿈속의 혼 돛대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깨었네.  
돌아오매 서글픈 마음 찾을 곳이 없고  
오직 서창에 지는 달 밝게 비침을 보도다.



## 호연재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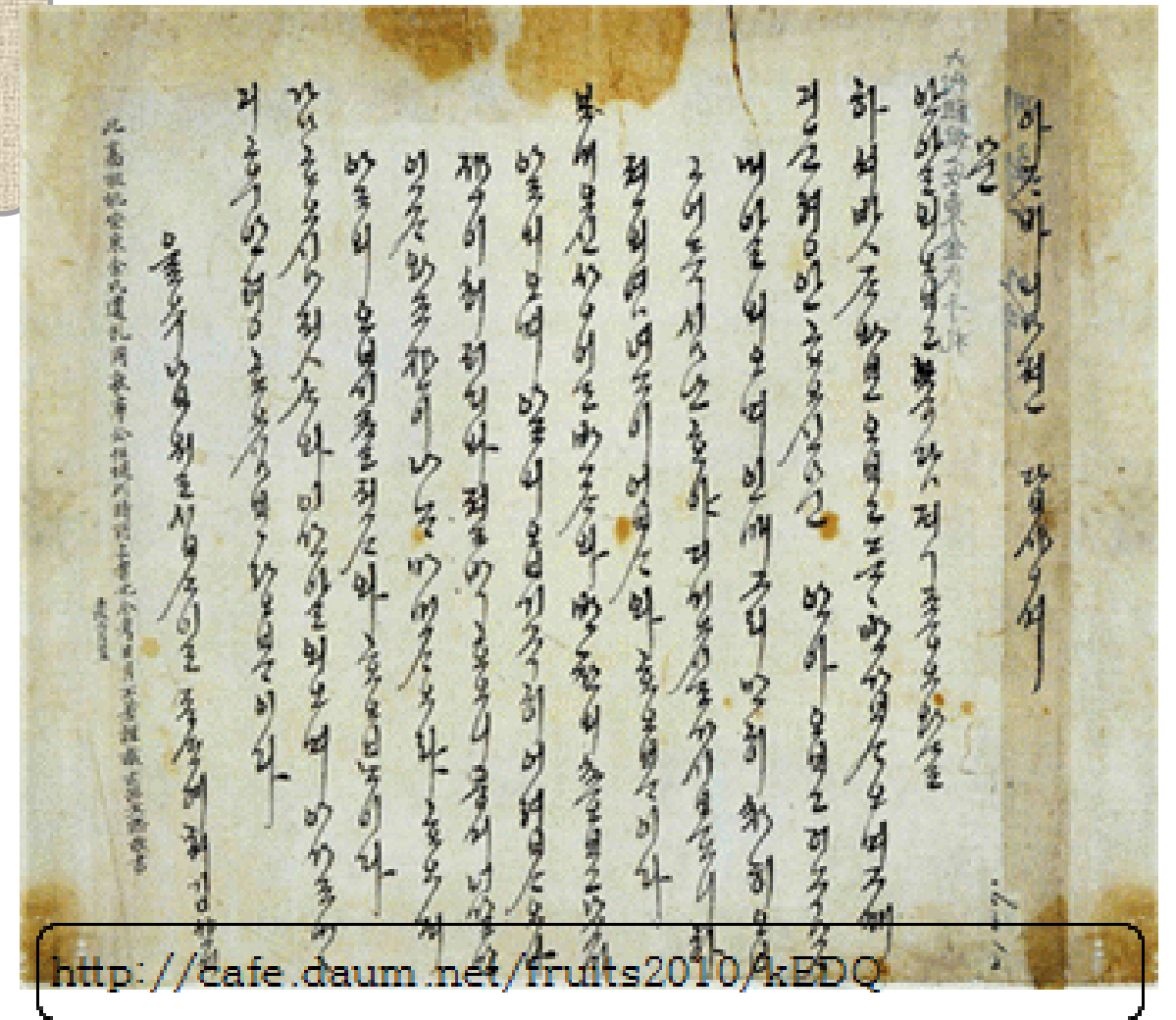
호연당 위에 호연한 기운

물과 구름 사립문 사이에 호연함 즐기네

호연함이 비록 좋으나 그도 곡식에서 생기니

삼산태수에서 쌀 빌림도 또한 호연함이네

浩然堂上好然氣 雲水柴門樂浩然 浩然雖樂生於穀 乞米三山亦浩然  
<杰米三山守>



## 호연재 시

취한 후 건곤이 넓어지고  
마음 열어내니 만사 태평하구나  
초연이 자리 위에 누웠으니  
잠시라도 세상 정 잊음을 즐기려네  
醉後乾坤闊 開心萬事平 悄然臥席上 唯樂暫忘情  
<醉作>



<http://cafe.daum.net/bpd30/G6k5/>

## 🔍 호연재 시

새 풀이 남방에서 났다기에  
돈으로 바꿔 오니 보배로운 노란 잎  
향기로운 칼로 써니 천 오라기 어지럽고  
말아서 금화로에 불 붙여 본다  
연기의 신비한 맛 온갖 시름 사라지게 하니  
서왕모 연환도 상서롭지 않구나  
인간 세상 시름에 막힌 이들에게 널리 알려  
이 약으로 근심 찬 속마음 풀게 했으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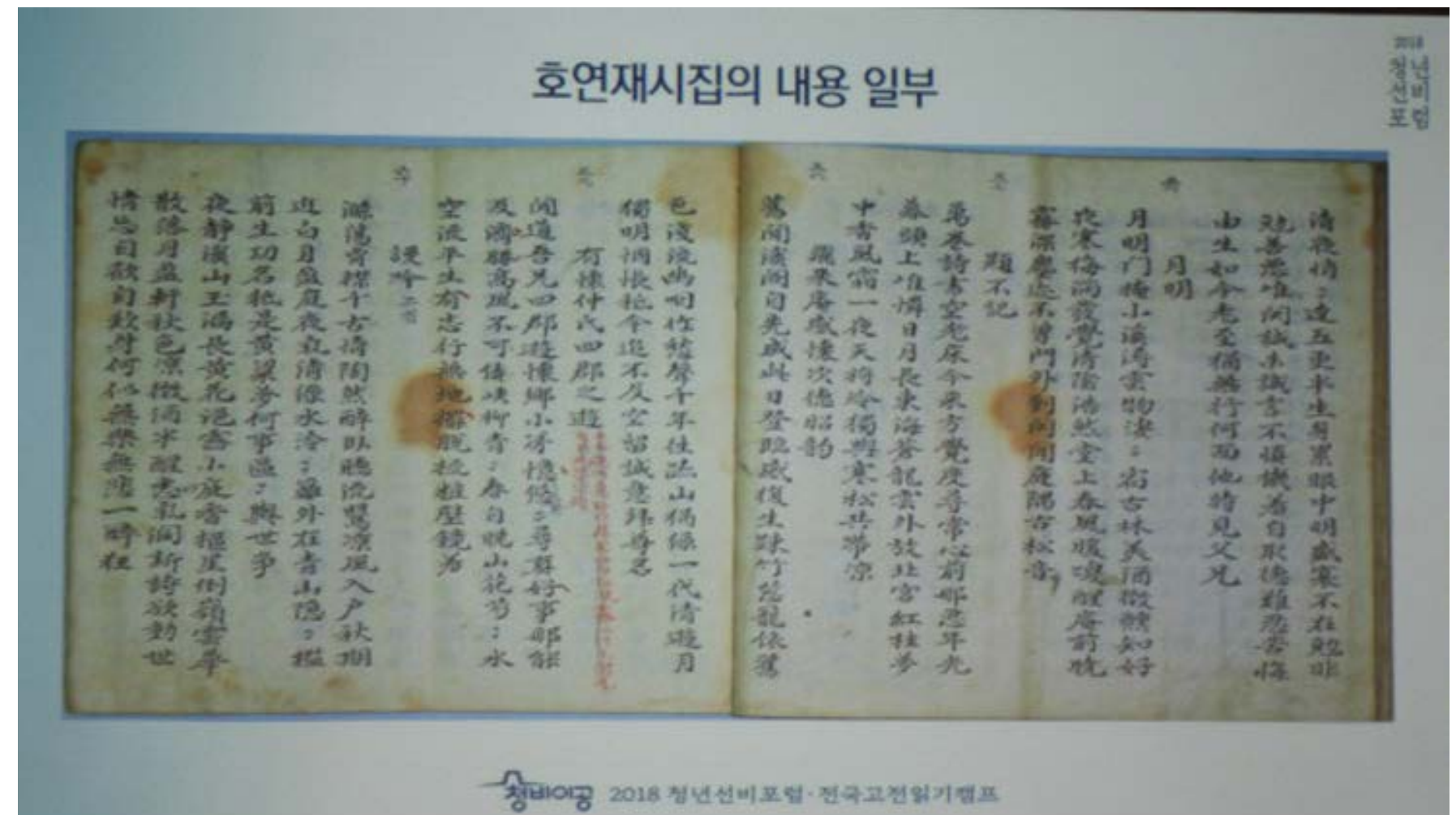
<南草>



<연소답청> 신윤복

# 🔍 호연재 시를 정리하며

- 그리움 토론
  - 친정 형제들, 부모.
  - 외로움 정서 표출
- 생계를 꾸리며 자신만의 고뇌해소를 시로 표현
-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





## Quiz로 정리하기

**1** 오월 긴 산을 삼 일만에 넘어서니  
노릉의 구름에 애처로운 노래 끊어진다  
내 몸 또한 왕가의 자손이라  
이 곳 두견새 우는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

**2** 취한 후 건곤이 넓어지고  
마음 열어내니 만사 태평하구나  
초연이 자리 위에 누웠으니  
세상의 정 잊음을 즐기려네

**3** 누가 곤륜산 옥을 떼 내어  
직녀의 빛을 만들어 주었나  
견우와 헤어진 뒤로는  
시름에 차 허공에 던져두었네

1. 왼쪽 시들의 작가는 각각 누구인가?

2. 왼쪽의 세 시에 대한 설명이다. 옳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시 1은 영월에서 지은 시이며 단종이 유배된 것을 슬퍼하고 있다.
- ② 시 2는 술에 취해 잠시 세상 걱정을 잊고자하는 마음을 표현했다.
- ③ 시 3은 반달을 소재로 삼아 지은 시이다.
- ④ 시 2는 남성 작가가 쓴 시이며 시 1과 시3은 여성 작가가 썼다.

3. 세 시 가운데 가장 나중에 지어진 시는 어떤 것인가?